

# 갈등·분쟁 없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 대선주자들이 그린 대한민국 청사진

### 정동영



“평화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분단 대장정과 민생 대장정을 통해 분단의 현실과 서민 경제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평화체제와 민생경제’를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장에서 느낀 서민 경제는 딱딱하고 차가웠다”며 “책상에서 만든 정책으로는 결코 서민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정 전 의장은 ‘공평한 기회 아래 평화가 감물처럼 흘러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제시했다.

남북평화기조가 구축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장을 통해 얻은 과실은 현장

### 손학규



“민주화 세력은 완장을 떼고, 산업화 세력은 과거의 향수를 버려야 합니다.”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으로 ‘선진평화세력 창출’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출 없이는 정치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도 어렵다는 것이 손 전 지사의 생각이다.

여기에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 주도 하의 개발 및 외형 위주의 리더십은 이제 폐기돼야 하며 개방적 경제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조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또한, 세대·이념·지역·민부의 갈등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은 선진 평화세력의 모토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손 전 지사는 ‘부자 나라, 행복한 국민, 평화로운 나라’를 내세웠다. 손 전 지사는 ‘선진평화연대’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남북 관

### 강운태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돼 인류 문명사를 아름답게 수 놓아야 합니다.”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둔 채 대권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강운태 전 내부부장관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별 불일이 없는 나라였던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지금은 진주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나라가 역사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는 부국이 됐고 핀란드는 지식강국을 만들어 국가경쟁력 1~2등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기로 정평이 나고 문화산업의 시대에 우리의 한류가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주어진 조건만 보면 일류국가로의 진입이 분명히 가능하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균등 기회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 조성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세대·이념·지역 초월한 평화체제 구축  
부자 나라, 행복한 국민, 평화로운 나라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환황해 중심 호남, ‘3만불 시대’ 열어

을 중심으로 마련된 정책을 토대로 함께 나누는 사회가 정 전 의장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를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 전 의장은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용 안정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정 전 의장은 ‘교육의 혁명’을 내세웠다.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 혁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정보 기술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업적 측면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중소기업 경제 강국이 21세기 새로운 경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관련, 정 전

의장은 “21세기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BRICs로 불리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거대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해안 교역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의 집중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또한, “기업도시 특별법, 서남권 종합개발 등을 통해 호남은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특히 전남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산업, 물류, 관광, 레저 산업의 메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 전 의장은 “호남 고속철, 항공·항만 등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된다면 전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이 될 것이며 광주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선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통일로 이끌 수 있으며, 국운 융성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손 전 지사는 특히 선진평화세력에 대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패자부활이 가능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향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선도하는 그룹”이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성장 동력에 대해 손 전 지사는 “21세기 공개도 전략”을 제시했다. 지식 정보,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로 무장하고 세계 속에서 경제·문화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의 광역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권, 금강·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충청·호남 경제권을 구축하여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호남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손 전 지사는 “호남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역 갈등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이념의 낡은 갈등 구조를 혁파하여 더 이상 정치권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미래와 평화로 가는 새로운 정치 선 보이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광주권과 목포·무안권이 그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북아 경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전진 기지로 전남 서남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쳐 다 경제권역과도 연관을 높이고 세계와도 경쟁할 수 있는 호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인류문명의 축이 동북아로 오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중에서 천시와 지리 즉 역사의 흐름과 주어진 조건만을 놓고 보면 5천년 민족사에서 이처럼 좋은 국운 융성의 호기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한번 더 도약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올라선다면, 이는 인류문명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강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인화’를 거론한 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10여년 내에 선진 일류국가의 초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새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번의 새 정치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위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 ▲당원과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창조하고 개혁하는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봉사하는 정치’가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비전과 관련, “새로운 아시아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동쪽이고 이는 곧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약무호남(若無湖南是無參萬鼎) 즉, 만약 호남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한민국 3만불 시대를 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인들은 예로부터 예술적 소양과 품성이 뛰어나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를 여는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서남해안 지역은 세계적인 휴양관광·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모아야 하며,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를 반드시 유치,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kfec.co.kr

# ‘행복’ 지킴이 새마을금고

·예금 ·적금 ·대출 ·공제(보험)